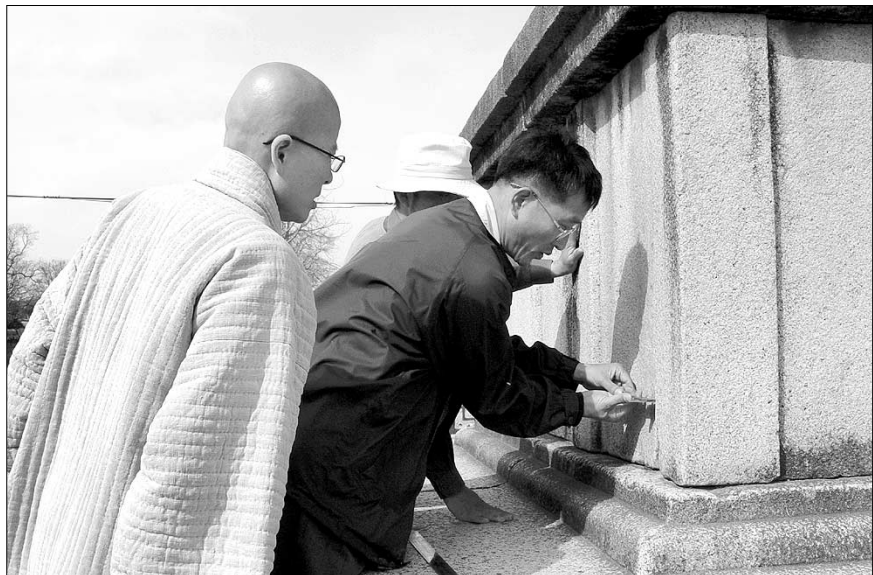


# 국보 34호 술정리 동탑 '기우뚱'



해일 스님과 김량관, 윤광수 씨가 술정리 동탑의 벌어진 틈을자로 재고 있다.

7년째 창녕을 술정리에 위치한 국보 34호 술정리 동탑을 지키고 있는 해일 스님. 스님의 끈질긴 노력으로 마을 주민들의 놀이터로 방치돼 있던 동탑의 주변 정비사업이 한창이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문화재청 예산 30여 원 지원이 확정되면서 동탑 보호에만 매달려 온 지난 시간이 헛되지 않았기에 기쁨이 컸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대형 포크레인을 동원해 진행된 철거작업으로 동탑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발견돼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해 10월, 탑에서 10m 떨어진 가옥 철거작업이 진행된 후 탑이 기울어진 것 같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탑 전문가를 불러 살펴본 결

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3월 16일 동탑을 찾은 창녕향토사학회 김량관 연구간사와 동탑 속의 유물 14점을 찾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윤광수 씨는 "면석부분에 1.8cm 가량의 틈이 생겼고, 상단부 갑석부분에도 1.2cm 정도가 벌어져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탑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옮겨갈 때 생기며 탑 기울기는 가속도를 받아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면석 1.8cm, 갑석부분 1.2cm 틈 군청의 '탑보호' 주변정비사업 영향 인근 공원·관광지화로 훼손 우려

특히 김 연구간사는 "국보 주위의 정비사업인 만큼 지표조사를 토대로 귀중한 자료들이 소실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해당관청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탑의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탑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일 스님의 또 한가지 걱정은 동탑 주변 정

비사업이 동탑을 공원화하거나 관광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오히려 동탑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군청이 탑에서 30m 인근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리다 문화재청에 의해 반려된 예를 들면서 인식 부족을 꼬집었다.

2002년 동아대박물관의 지표조사 결과 동탑이 인양사라는 대규모 사적지의 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마땅히 사적지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게 스님의 주장. 뿐만 아니라 지표조사를 토대로 한 발굴조사, 그에 따른 복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변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창녕군청 관계자는 "그 정도 진동에 탑이 기울어졌을 리 없다"며 스님의 과민반응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사적지 지정 요구에 대해서도 "주변 토지 매입과 철거 작업을 우선 시행한 후 문화재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3월 16일 문화유적답사회 김한태 회장과 동탑에 인근한 보물 520호 술정리 서탑을 찾은 해일 스님은 또 한번 놀랐다. 서탑 역시 훼손이 심각하기 때문, 인양사의 쌍탑으로 인양사의 규모를 가능케하는 서탑 역시 지표석이 뿌리째 뽑혀있고 상층 기단이 눈에 띌 정도로 벌어져 있었다. 스님은 곧바로 문화재청, 지역 문화재 관계자들에게 눈물로 탑 보호를 호소하고 나섰다.

창녕=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화방동산' 겹경사

## 신축건물 봉사, 자활후견센터 선정



화방동산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남해군 향토장학회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습.

노인무료 요양시설인 화방복지원 화방동산(원장 효천)에 기쁜 소식이 줄을 이었다.

3월 10일 남해지역 자활후견센터 선정에서 총 23개 기관 중 불교계에

서는 유일하게 화방동산이 지정된 데다 22일에는 프로그램실, 강당 등을 갖춘 건물 한 동에 대한 신축 봉사를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이다.

화방동산은 4월 1일부터 간병, 집수리, 청소영역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선하는 자활후견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특히 간병을 특화사업으로 선정,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화방동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장학금을 모아 남해군 향토장학회에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천미희 기자

# 통도사 자비원 노인요양원 기공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대표 이사 현문)은 18일 '전문노인요양원'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대표이사 현문 스님, 통도사자비원 원장 오심 스님을 비롯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공식에서 현문 스님은 "인근 지역 어르신들의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통해 자유롭게 개방, 지역 노인 복지의 중추적 역할과 자비 실천 도량의 기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울 11월에 완공될 통도사자비원 노인전문요양원은 2002년 국고 보조사업으로 확정, 대지면적 760평, 연면적 665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5층의 현대식 건물에 총 15개의 병실에 70여 병상이 들어선다. 특히 최첨단의 시설을 갖추고 촉탁의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등이 소의 계층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를 펼치게 된다.

천미희 기자

# 지울 스님 포크레인 앞에 기부좌



지울 스님이 천성산 구간의 공사를 막기 위해 포크레인 앞에 기부좌를 틀고 있었다.

갔던 지울 스님 때문에 멈춰있던 공사를 다시 재개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지울 스님이 포크레인 앞에 기부좌를 틀고 앉으면서 상황은 긴박해졌다. 스님은 "법적인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데 왜 공사를 강행하려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한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공사는 다시 중단됐다.

벌목 현장으로 들어가 공사 강행을 몸으로 맞고 있는 지울 스님은 공사 강행과 관련 16일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스님은 도봉농 만나러 가기 행사로 천성산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벌목현장 퍼포먼스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천인 수호대 결성을 서두르는 한편, 현장지지 방문단을 구성, 매주 일요일마다 지울 스님에게 힘을 보태게 된다.

글·사진=천미희 기자

## 강한 반발에 공사 중단 식목일 퍼포먼스 예정

3월 15일, 천성산 자락 개곡 마을의 벌목 공사 현장에 포크레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공사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10일 "벌목 공사를 몸으로라도 막겠다"며 공사현장에 들어

# "온 몸으로 부처님을 부릅니다"



임희규 씨와 그의 딸 수진 양이 함께 수화로 '나눔의 기쁨'이란 노래를 부르고 있다.

## 부산농아불자회 하루찾집 수화찬불가 등 행사 다채

부산농아인불자회와 수화봉사모임 심어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하루찾집이 열린 14일, 전통찾집 산머루, 찾집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눈이 모두 주방 옆에 마련된 임시 무대에 고정됐다. 무대 위에서 농아 불자인 임희규 씨의 수화 노래가 한창이었기 때문.

단순한 수화가 아닌 온 몸으로 그가 소리 없이 부르는 노래는 때론 춤인 듯 때론 절규하는 몸짓인 듯 강렬했다.

"한때는 세상이 싫었어요. 그러나 부처님을 알고부터 세상이 밝아졌어요. 한때는 나마저도 싫었어요. 그러나 부처님을 알고부터 모두를 사랑하게 됐어요." 소리가 되진 못한 노래가 임희규 씨의 손끝을 따라 관객들에게 전해졌다.

"부처님을 사랑한다"는 마지막 가사를 표현하는 임희규 불자의 몸짓이 끝나자 많은 관객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냈다.

이러진 무대는 임희규 불자의 딸 수진양이와 함께 한 무대. 아빠를 따라 고사리손으로 '나눔의 기쁨'이라는 수화 노래를 부른 수진양은 농아가 아니다. 아빠는 딸 수진양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박자 하나 틀리지 않고 호흡을 맞췄다. 이날 하루 찾집을 성황리에 마친 농아불자회와 심어회 회원, 이들을 뒷바라지 해온 도인 스님은 내년에 찬불가 수화발표회를 개최할 용기를 얻었다고 털어놓았다.

또 하루찾집 수익금 전액을 불우 농아인에게 전달하는 화랑법회를 열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 대구택(주) 석불회 9주년 기념 법회

텅스텐 공금 주식회사 대구택 불자들의 모임인 석불회(회장 이동락)가 창립 9주년을 맞아 3월 13일 대구 산보사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기념법회에서 등운 스님(삼보사 주지)은 "일을 일로 보면 일꾼이 되고 일을 수행으로 보면 수행자가 될 것"이라며 "팔정도도 삶 속에서 실천하여 발 한발 딛고 팔 한뼉 드는 것이 수행이 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법문했다. 배지선 기자

## 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 창립 8주년 총회

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회장 김석조) 3월 17일 부산시청 동백에서 창립 8주년 기념법회 및 정기총회를 봉행했다. 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 총재 대

성 스님과 살동근 부산시 교육감 등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김석조 협회장은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청소년 단체 지도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중등부 지회장으로 금정중학교 최주석 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김두자 씨를 비롯한 5명의 운영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천미희 기자

## 불교TV 대구지사 선불교대학 입학식

3월 12일 불교TV 대구지사 무상사는 철우 스님(영산출원장), 입학생 50명등 사부대중 1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선불교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불교대학장 철우 스님은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비구 5명에게 하고 가섭 3형제를 만나 1,200명의 제자에게 전했듯이 무상사 선불교대학도 수많은 불교대학중 특성화된 대학을 만들어 전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선회법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 곤지암 우리절

#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눈소름으로 울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선묘장구대라니)

## 생전에 수재 법회

절기	날짜	요일	특별법회 / 행사내역	장소
입재	2.29	일	입재법요식	우리절
초재	3.07	일	윤달삼시순례	보문사
이재	3.14	일	주장자법회	우리절
삼재	3.21	일	태화산신신제	우리절
사재	3.28	일	점안법요식	우리절
오재	4.04	일	서용근스님사리권법회	백양사
육재	4.11	일	관정법회	우리절
막재	4.18	일	봉송법요식	우리절

제3재 태화산신신제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동봉스님의 <<일원곡>>제8권을 나누어 드리고 제6재 관정법회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역시 동봉스님이 사언절로 옮긴 <<지장경>>을 나누어 드립니다. 또한 제4재 점안법요식에서는 예수제용품을 비롯하여 금강정답다라니와 광명진언답다라니를 점안합니다. 예수제용품은 회향 때 살라드리지만 이번 윤달에 우리절에서 점안한 답다라니는 종이 아닌 비단 위에 그려진 것으로써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다시없는 좋은 효도선물이 될 것입니다.